

강진군, AI 실무자 발굴 공직 디지털 혁신 문화 확산

7급 이하 1년 이상 재직 부서추천 자
정량·정성평가 종합선정 방식 적용
기술 활용 행정 현장 해결 능력 평가
70%이상 챗GPT 업무 적극 활용중

전라남도 강진군이 행정에 인공지능을 접목해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실무자를 대상으로 'AI 행정의 달인'을 선발한다. 이번 선발은 '강진군 모범공무원' 제도와 연계해 진행되며 군은 이를 통해 공직 내

디지털 혁신 문화를 보다 체계적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18일 강진군에 따르면 'AI 행정의 달인'은 7급 이하 공무원 가운데 1년 이상 재직자 중 부서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며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종합해 선정된다.

특히 AI 기술을 활용한 업무개선 사례, 관련 교육 이수, 행정 현장에서의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등이 핵심 평가 기준이 된다.

강진군은 실무 현장에서 AI를 능동적으로 활용해 변화를 이끈 사례들을 적극 발굴하고 있으며, 이번 'AI 행정의 달인' 선발은 그 노력을 제도화한 조치다.

선발된 공무원은 조직 내 디지털 혁신의 모범사례로 공유돼 전 부서에 AI 활용 문화를 확산시키는 중심 역할을 한다.

강진군은 최근 자체 조사에서 전체 공무원의 70% 이상이 챗GPT 등 생성형 AI를 업무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최고 수준의 수치로 군이 추진 중인 디지털 기반 행정혁신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AI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행정의 새로운 표준이고 실무에서 변화를 만들어가는 공무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곧 혁신의 주체다"며 "앞으로도 AI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질적 도약을 위해 실무자 중심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강진=김윤복 기자

2025년 지역사회건강 조사 실시
무안군, 7월31일까지

전라남도 무안군은 지역주민의 건강 수준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지역 보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오는 7월31일까지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관련법에 근거해 질병관리청과 시·도, 보건소가 협력해 수행하는 국가승인통계 조사로 지역 단위의 보건정책 수립과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올해 무안군은 530여가구의 만 19세 이상 성인 891명을 대상으로 훈련된 조사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1:1 면접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항목은 건강행태(흡연, 음주, 운동 등), 만성질환 유병 여부, 예방접종, 정신건강, 의료이용 등 19개 영역 169개 조사 문항으로 구성된다.

조사는 태블릿PC를 활용한 전자조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응답자에게는 소정의 답례품이 제공된다. 모든 응답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며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된다.

김성철 보건소장은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 건강을 반영한 맞춤형 보건정책 수립을 위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며 "개인정보 등 응답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므로 조사원 방문 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무안=김행언 기자

쓰레기 불법투기 야간단속 강화
강진군, CCTV 4대 추가 설치

전라남도 강진군이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야간단속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18일 강진군에 따르면 그동안 올바른 쓰레기 배출 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와 계도활동을 펼쳐왔으나 일부 지역에서 야간 시간대를 이용한 무단투기가 끊이지 않아 주민 불편과 도시 미관 저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강진군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불법투기 단속요원,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고, 주요 불법투기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평일 및 주말 야간에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불법투기 현장을 적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함은 물론 즉시 수거명령을 내리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단속과 병행해 불법투기 감시 CCTV 4대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며 군민 제보를 적극 수렴해 자발적인 주민 참여도 유도한다.

강진군 관계자는 "깨끗한 환경은 군민 모두의 권리이자 책임이다"며 "쓰레기 분리배출을 철저히 하고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배출하는 등 올바른 쓰레기 배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강진=김윤복 기자

야외활동 벌초임 등 사고 주의
해남군, 안전요령 숙지 당부

전라남도 해남군이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봄철을 맞아 벌초임과 뱀물림 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8일 해남군에 따르면 벌초임과 뱀물림 사고는 주로 등산, 벌초, 농작업 등 야외 활동이 많은 5월부터 9월 사이에 전체 사고의 약 80%가 발생한다.

벌에 쏘였을 경우 벌침을 카드 등으로 제거하고 소독 및 냉찜질을 해야 하며 뱀에 물렸을 경우 상처를 씻거나 냉찜질을 하지 말고 물린 부위를 심장보다 낮게 유지한 채 움직임을 최소화해야 한다.

주요 증상으로는 가려움, 붓기, 어지러움, 구토, 호흡곤란 등이 있으며 아나필락시스(과민성 쇼크)나 전신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즉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을 찾아야 한다.

해남군 관계자는 "벌초임이나 뱀물림 사고 발생 시 자가처치보다는 전문적인 대응이 중요하다"며 "즉시 119에 신고하고,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신속히 조치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해남군은 군민안전보호를 통해 독역성 동물 접촉사고 시 사망 및 후유장애 2000만원, 응급실 내원 진료비 30만원 등을 보상하고 있다. 해남=전연수 기자

경로당 입식 좌석 도입 확대
무안군, 어르신 이용 편의 ↑

전라남도 무안군은 어르신들이 보다 편안하고 안전하게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좌석 중심의 기존 시설을 입식 좌석으로 개선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군은 2022년부터 입식 좌석 개선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으며 시설 여건이 열악하거나 이용자가 많은 경로당을 우선 선정해 개선을 진행했다.

올해까지 경로당 418개소에 입식 좌석을 도입할 계획이며 4월 말 기준으로 213개소의 설치를 완료했다.

입식좌석은 어르신들이 바닥에서 일어나거나 앉을 때 겪는 불편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줘 관절 건강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편리한 환경 조성은 경로당 이용률을 높이고 지역사회 내 소통과 여가 활동 참여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무안군은 시설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 어르신들이 불편 없이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소통을 이어갈 방침이다.

오선희 주민생활과장은 "입식 좌석 도입은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작은 변화지만, 그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무안=김행언 기자



지난 12일 무안군복지기동대원들이 취약계층 가구를 찾아 도배·장판 교체와 가스레인지 등 주방 용품 청소 활동을 펼쳤다.

무안군 제공

무안군 삼향읍 복지기동대,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봉사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대장 오창덕)가 지난 12일 취약계층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복지기동대의 날'을 운영했다.

18일 무안군에 따르면 대상가구는 곰팡이와 악취로 인해 도배·장판 교체와 주

방 정리가 시급했던 저소득 부자가정으로 복지기동대원들은 도배·장판 교체, 청소, 집안 정리정돈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무안군지하철센터의 이동빨래방과 해충 방역소독 서비스를 연계해 묵은 이불과

의류를 깨끗하게 세탁하며 위생적인 환경 조성에도 힘썼다.

오은영 삼향읍장은 "소외된 이웃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동참해 주시는 복지기동대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무안=김행언 기자

목포해경, 제한조건 위반 중국어선 적발

어창용적 변경 신고 누락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제한조건을 위반해 어업활동을 한 중국어선이 목포해경에 의해 적발됐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 17일 오후 3시께 전남 신안군 홍도 서방 약 46km 해상에서 어창 용적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채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조업한 혐의로 148톤급 유망 중국어선 A호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중국어선 A호는 실제 어창용적이 180.09㎥에서 156.82㎥로 변경됐으나 어업허가증상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채 지난 2일부터 17일까지 조업해 잡어 780킬로그램을 포획하는 등 경제수역어업주권법상 제한조건을 위반한 혐의로 적발됐다.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 허가를 받은 중국어선은 한·중 양국어선의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에 의거해 어



지난 17일 목포해경 직원들이 중국어선을 검문검색하고 있다.

목포해경 제공

업활동허가증상 어창용적과 실제 어창용적이 변경된 경우 변경신고를 한 후 조업을 해야 한다.

목포해경은 같은 날 오후 11시께 적발한 A호에 담보금 4000만원을 납부받고 현장에서 석방했다.

목포=정기찬 기자

